

# 정부·행동주의펀드 압박... 기업, 자사주 매입·소각 '속도'

삼성물산 올해 1조 규모 자사주 소각 SK이노, 기아, KT&G 등도 결정 4대 금융지주, 예정 규모 9080억 이달 주총, 역대급 주주환원 검토

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21개사(지난달 12일 기준)가 3조314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34억원)에 비하면 8.4배 수준이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이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주식의 가



/유도이미지

치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삼성물산은 올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SK이노베이션은 7936억원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이는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이다. 기아(5000억

원), KT&G(3150억원), SK텔레콤(2000억원), 금호석유화학(1290억원) 등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금융지주들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예정된 자사주 소각 규모는 현재 9080억원에 달한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KB금융 3200억원, 하나금융 3000억원, 신한금융 1500억원, 우리금융 1380억원 순이다.

시장에선 기업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주주총회 시즌은 역대급 주주환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중장기 주주환원 목표와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단계적 확대와 기업, 자본시장의 노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연결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이사회가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보고서에 보유 사유, 추가매입 및 소각·매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

령 등을 개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4조762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의 핵심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이런 기초가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 확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환원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배당확대와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제도 개선의 타겟도 이러한 기업들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금리인하 머지 않아”... 채권·회사채 선호 ‘집중’

7일간 채권형 펀드 설정액 3831억 ↑ 연준, 금리인하 비둘기파적 발언 주목 회사채 순매수액, 전년비 57.8%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채권 막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속돼 온 채권투자 열풍과 공격적인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맞물리면서 국내보다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진 모습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공모 펀드들 가운데 국내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38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조6765억원이 몰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방증했다. 반면, 최근 일주일 간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3815억원 감소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현재

(국내 펀드 설정액 증감 추이 (10억원 이상 공모펀드 기준))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	1일				연초이후	
			1일	1주	1개월	3개월		
국내주식형	1,107	478,935	679,179	522	-3,815	-15,289	-10,625	5,947
국내채권형	324	444,914	461,443	1,119	3,831	19,713	29,591	36,765

/에프앤가이드

까지로 보면 5947억원의 설정액이 유입됐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감소세로 변한 모습이다.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지지개를 피면서 채권에 관심이 쏠리자 '채권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장은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있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 멀리 있지 않다(we're not far from it)"고 비둘기

파적 발언을 해 주목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늦어도 2분기 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인하가 머지 않아'라는 발언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 동반 하향 조정도 ECB도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개인투자자들의 회사채 순매수액(발행액-상환액)은 총 2조3678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1조271억을 순매수한 데 이어 2월에도 1조3407억원을 담은 것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로 굳어진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채권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 국내에서 회사채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채권 순매수 규모 비중을 보면 국내 비중이 31%, 회사채는 27%였지만 올해는 회사채가 30%, 국내가 27.2%로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급등 위험이 적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시에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내보다 금리가 더 높은 회사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

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같은 경우에는 7월과 10월쯤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미국은 6월부터 2~3차례 정도의 인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2월 중순 이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2월 고용지표 이후 골디락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도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하겠지만,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작년 12월 점도표에서 밝힌 3차례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하반기에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3년이자 3.3%를 하회하면서 레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주요국 글로벌 거래소, 투자기관 및 지수산출기관 등의 최고위급 면담을 위해 출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정부와 거래소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FIA 국제 파생상품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요 거래소 경영진 등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사업 논의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제파생상품협회(FIA)가 매년 3월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파생상품 행사로 주요 거래소 등 약 430개 기관이 참가한다. /신하은 기자

##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윤병운 부사장 내정

### NH투자증권

주주총회 거쳐 사내이사 선임 예정

NH투자증권이 차기 대표이사로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사진)을 내정했다.

11일 NH투자증권은 이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임추위)·이사회를 열어 윤 부사장을 선임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이에 따라 윤 부사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윤 부사장은 1967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1993년 LG투자증권 시절에 입사해 현재까지 자리를 지켰다. 정영채 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랜 기간동안 호흡을 맞추며 NH투자증

권투자은행(IB)강자로 거듭나도록 인문로 꼽히고 있다. 윤 부사장은 NH투자증권에서 20년간 커리어, IB 영업을 맡아왔다.

앞서 정영채 대표가 이달을 끝으로 용퇴의사를 밝히자 임추위에서 유찬형 농협중앙회 전 부회장, 윤병운 부사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압축한 바 있다. 이후 후임 대표와 관련해 농협 내부에서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사장이 대표이사 단독 후보로 내정되면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갈등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 기자



## 미래에셋 'TIGER ETF', 순자산 50兆 돌파

184종 합계... 시장 진출 18년 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ETF) 총 순자산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종가 기준 TIGER ETF 184종의 순자산 합계는 50조 226억원이다. 2006년 TIGER ETF가 국내 ETF 시장에 진출한 지 18년 만이다.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를 비롯해 국내 상장된 1조원 이상 대형 ETF 27종 가운데 11종이 TIGER ETF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혁신성장 테마 ETF를 선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TIGER 미

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 'TIGER 미국테크TOP10 INDX ETF' 등 특히 주식형 ETF에서 두각을 보여왔다.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TIGER ETF 순자산 규모는 총 22조 5605억원으로 국내 운용사 중 1위다.

최근에는 차별화된 상품을 발굴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며 기존 금리형 ETF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목표한 인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TIGER 미국+%프리미엄 ETF 시리즈', 또한 'TIGER 미국테크 TOP10+10%프리미엄 ETF' 등이 대표적이다. /원관희 기자